

내용 알차고 기획 참신 '기다려지는 신문'

'하나 더 있어서 좋은 부처님 기관지'가 되고자 노력해 온 본지가 10월 15일로 창간 2주년을 맞았다. 이시대 불자들이 부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신행·포교의 선도적인 역할을 지임한 '현대불교' 2년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까. 또 앞으로 '현대불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독자의 소리를 듣는다.
(편집자 주)

과감하게 불교왜곡 대처

▲도법스님(선우도량 공동대표)=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불교교리를 선양하고 교세를 확장하며 일반신앙인의 생활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현대불교'의 2년은 긍정적이라 본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불교의 현실에 비판적인 면이 아직 부족하지 않다는 아쉬움을 갖게 한다. 우리사회 곳곳에는 불교사상을 왜곡하는 반불교적이고 비불교적인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같은 반불교적이고 비불교적인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과감히 문제를 제기하고 명확하고 예리한 비판을 가하는 노력이 지난 2년간의 시간을 기반으로 해 앞으로 이뤄졌으면 한다.
불교사상과 정신에 입각해 오늘의 한국불교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확고한 의지로 '현대불교'가 불자들과 함께 한국불교의 오늘을 고민하고 21세기 미래 불교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하는 진정한 불교언론의 역할을 펼쳐나가길 바란다.

'불교현대화' 기획물 기대

▲김동현(국립문화재연구소장)=기사 내용이나 편집 등 전반적으로 무난한 편이다. 특히 '산문밖의 선'이나 1면의 '이렇게 들었다' 등은 매우 훌륭한 기획이라 생각되며 신문을 받아 볼 때마다 먼저 눈이 가는 난(難)이다.
그러나 불법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라는 사시에 진정으로 걸맞은 신문이 되고 있는지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애초 '현대불교'가 의도했던 현대인에게 불교를 밀착시킬 수 있는 구성은 다소 미흡하지 않나 싶다. 따라서 현대의 불교를 이끄는 불교인들 탐방과 고승들의 훌륭한 업적 중 감동을 줄 수 있는 일화 연재, 과거 불교사와 현대불교사를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획물 등을 실어 현대인들에게 걸맞는 이미지의 신문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교는 현대과학문명에 접근한 교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만큼 불교가 현대중요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도 현대불교신문이 추구해야 할 방향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대식 도량을 탐방해 불교도 현대화에 걸맞은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지방소식·행사 더 신도록

▲신근식(삼보법회 회장)=우선 한글 전용으로 돼 있어 읽기에 편하다. 뿐만 아니라 내용이 쉽고 친근감이 들어 우리 법회 학생들에게 구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편집 또한 현대감각에 맞게 참신하고 깨끗하다는 느낌이 든다. 다만 더러워진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내용면에서 볼 때 빠짐없이 실리는 스님들의 법문과 어려운 경전을 풀이해준 해설 등은 불자나 일반인에게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법회안내란을 지역적으로 더욱 폭넓게 실었으면 하는 것이다. 전국적 사찰 법회안내를 통해, 절이란 가깝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매주 가는 곳을 인식시켜 주었으면 한다. 또 지방소식을 늘려 전국적 교단 독자들이 자기고향 소식을 흥겹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
불교계에서도 일간지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현대불교신문이 바로 그 류를 담당해 나가기를 바란다. 더불어 '현대불교'가 부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는 이 땅의 윤리도덕을 바로세우는 당간 지주가 되길 기대한다.

참된 삶·지혜 일깨우는 신행 동반자 왜곡된 불교현실 예리한 비판 기대

종단행정 냉철한 비판을

▲박두원(중앙일보 편집부장)=지난 2년동안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현대불교신문을 읽어왔다.
현대불교신문이 날이 갈수록 다양하고 심상한 신행포교기사로 어느덧 정겨운 포교지로서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 나를 비롯한 주위의 의견이다.
처음부터 한글가로쓰기 편집을 시작해 현대불교신문은 참신하고 안정된 편집으로 보는 이의 눈과 마음을 한층 즐겁게 만들어 왔다. 앞으로 기사내용과 제목이 보다 쉬워졌으면 하고 지면에서 고정코너로 매주 소개되는 교수필진들의 글도 초발심자들이 조금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으로, 쉬운 글이 많이 실렸으면 한다.
이같은 포교지의 성격을 보다 쉽고 밝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고 동시에 종단의 행정부문에 대한 애정이 담긴 냉철한 비판기사도 많이 다루어서 불교정

론지로서의 면모를 한층 갖추어갈 것 부하고 싶다.

재가자들의 신행 길잡이

▲김경자(창간독자·서울 연희동)=불교를 제대로 알고 싶어 신행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나름대로 해봤지만, 역시 내 근기에는 쉽고 다양한 각도에서 현대어로 풀이한 언론 출판물이 가장 좋았다. 그래서 불교계의 월간지 주간지 등 정기간행물을 많이 읽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대불교'가 창간된다는 소식을 듣고 창간호부터 읽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은 특히 재가불자들에게 더없이 좋은 신행지침이 된다. 신행의 교과서라고나 할까. 현대불교신문이 배워되는 화요일 당일에는 1면부터 16면까지 하나하나 마치 시험공부하는 학생처럼 살살이 읽는다.
가장 열심히 읽는 기획은 역시 큰스님의 지상법석. 마치 큰스님께서 나를 위해 마구잡이로 법문을 들려주시는 것 같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에게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동반자가 되기도 하고 이끌어 주는 선지식이 되기도 하는 현대불교신문을 불교를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권하고 있다.

불교정보화 선도에 박수

▲유지원(대불련 지도위원장)=차분한 지면구성과 유익한 기사가 많아 신심이 절로 나게 하는 신문이라 평가한다. 당초 창간 취지대로의 신행중심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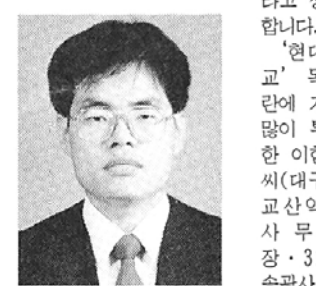


최다 두고 독자

이 한 득 대구불교산악회 사무국장

"기존의 불교언론보다 '현대불교'는 내용·기획·편집 면에서 돋보입니다. 특히 현대불교가 받고 있는 반가사유상 보급운동의 경우, 우리 것을 찾자는 취지에서 불자들의 애도 일반인들의 광범위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현대불교'가 불교계를 선도하는 언론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는 한 생각입니다."

인터뷰



이한득 대구불교산악회 사무국장·32, 송파사 대

반가상보급 사업 등 '눈길'

구원인삼덕동 관음사 신도인 이씨는 지난해 초부터 '현대불교' 구독을 시작했다. 이씨는 내면의 자기 성장과 불교계의 큰 이슈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독자투고에 열정을 쏟아 △사찰 입구부터는 자동차를 버리고 걸어서 들어가야 △사찰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거나 슬리퍼는 절대 △불자들부터 행락질서의 모범을 보이는 녹색휴가를 보내자 등 무심히 보아넘기기 쉬운 일들을 하나하나 독자투고로 지적해 왔다. 물론 전부를 지면에서 보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불교계의 이슈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 말한다. 이같은 불교에 대한 따뜻한 애정은 홀로 계산 모친과 출가한 동생(목연스님)을 둔 노총각의 진지한 세상살이에 기인하는 듯하다. "현대불교가 지방의 불교뉴스와 행사에도 지면활용을 많이했으면 합니다. 서울 위주보다는 '전국 1천만 불자의 현대불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라왕자 김교각 스님의 발자취마라
九華山
 보타낙가산(海中관음도량) 황산(천하계일 구름바다) 상해(임시정부) 양자강 南쪽... 96.11.4(월) 출발... 8일
 현재접수중 (02)723-9811 (주최) 大佛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생활 속의 불교 03

고향 가는 먼 길, 발걸음은 뜻 깊다

태어나지 않은 것만이 죽음을 면한다. 태어난 것은 아무리 위대하고 강력한 것이더라도 반드시 죽는다. 머무는 시간의 길고 짧음은 있을지라도 영생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다. 고로 사람으로 치면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이미 죽을 운명을 지니게 된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다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아 놓은 셈이다.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의 차이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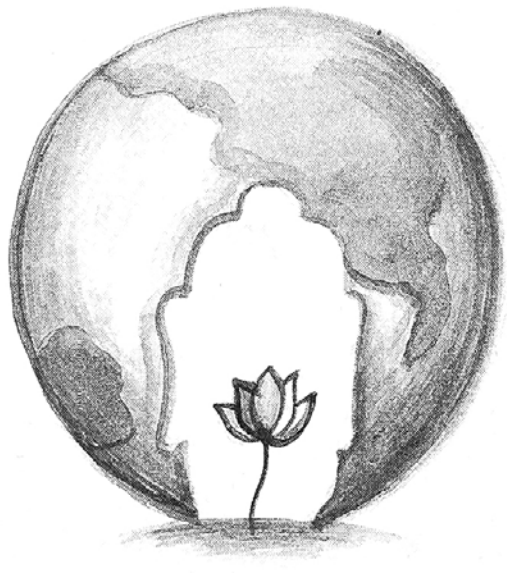
그런데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 하는가. 시작은 언제나 축복이고 끝은 왜 애도의 대상이 되는가.
죽음이 두려운 까닭은 아마도 죽음의 정체를 잘 모르는 때문일 것이다. 마치 별빛 조차 없는 밤길처럼, 천년미답의 동굴을 들어 갈 때처럼 발디딜 자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은 비유하여 말하기를 탄생과 죽음이란 옷을 갈아입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한다. 탄생은 새 옷을 맞춰 입는 것이요 죽음은 입고 있던 헌 옷을 벗어버리는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고로 그것은 축복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한다. 저 태양이 아침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저녁에 지구 뒤 편으로 숨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다만 드러났다 숨었다하는 부침(浮沈)만이 계속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저 부침을 되풀이 하는 주체는 과연 누구이며 어인 까닭에 들락날락 한다는 말인가?
불법에서는 모든 중생의 참 성품을 이듬하여 영원한 생명에너지, 불성, 참나, 진여...라고 한다. 그 성품자리에서 나·나의 구별이 없고 우주의 근본과 한자리 한마음이며 그대로 부처인 채 여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언제 부처인가 그만 본성을 잊고



나·나를 구별하고 육신에 집착하게 됨에 따라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불성불멸의 경지에서 유한의 세계로 뛰어들었다고 한다.

나고 죽음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따라서 참 성품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한 부침은 피할 수 없는 속성이 되고만 것이다.

어느 시인은 '왜 사느냐고 물으면 웃지요'라고 읊었다. 우리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불법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의 대답은 응당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라고 해야 맞는다. 나고 죽는 부침의 세계에서 본래의 성품자리로 되돌아가기 위해 '열심히' 산다고 해야 한다.

한 생애 못 마치면 다음 생애, 또 그 다음 생애라도 꼭 고향엘 가겠다는 그런 의지와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해야 한다. 왜냐? 참 성품 자리에 이르지 않는 한 부침은 스스로 그치지 않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고 들은 진

화를 목표로한 과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태어남은 이같은 진화의 먼 길 위에 새롭게 한 걸음 내 딛는 것이요 죽음은 더 빨리 차게 진화하고자 새 몸을 갖춰나가기 위한 중간과정인 것이다. 고향 가는 먼 길에 해가 저물면 하룻밤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길을 나서서, 그것이 탄생이요 삶이요 죽음이다.

그러므로 고향에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발걸음, 출발과 행진과 휴식은 목표가 있는 과정이다. 그것은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그냥 과정이다. 고향 집 뒷마루에 걸망을 내려 놓기 전까지는 비록 슬픔이 있고 불안·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다만 과정인 것이다. 삶이 곧 진화의 도정(道程)임을 잊지 않는다면 어떠한 발걸음도 낭비는 아닌 것이다.

협찬: 한 승 균